# 예술 해커톤

ART HACKATH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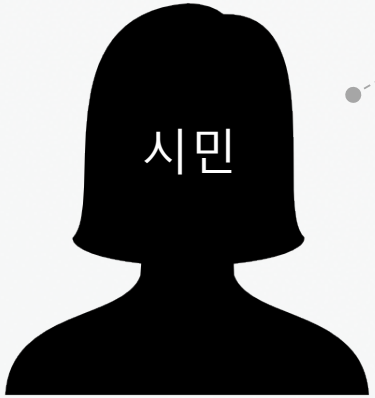
스마트 아트센터

# ALive

## Arts + Live

“ 작품이 먼저 말을 걸어
예술가와 관객의 거리를 줄이는 플랫폼 ”

# 미스커뮤니케이션 | 서울7017




하지만 작품이 가진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고 흉물스럽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출퇴근길 서울역 앞을 지나다 이상한 게 눈에 띄여 깜짝 놀랐다"며 "지저분해 보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나중에 예술 작품이란 얘기를 들었지만 굳이 거대한 모습으로 설치돼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7.05.17 15:07

황 작가는 "논란도 설치 미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며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걸을때 신는 신발을 통해 차길에서 거듭난 보행길의 의미를 조명하고 도심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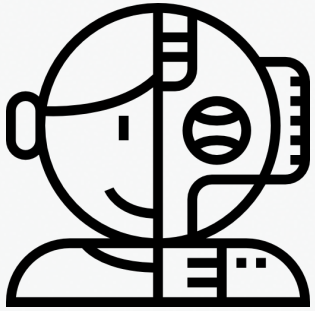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7.05.17 15:07

# 미스커뮤니케이션 | 서울7017

# 미스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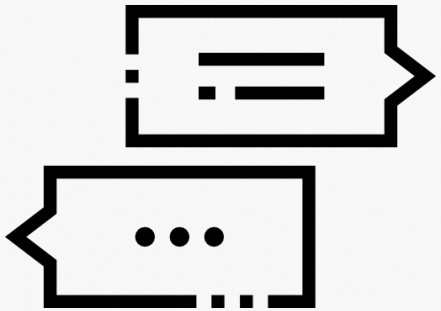
# 작품이 나에게 말을 건다면?

# 핵심 컨셉 Key Concept



**예술작품인터넷**
**IoA(Internet of Arts)**

-예술작품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 작품이 관객을 인식하여 말을 걸어오고 관객이 대답



**피드백 feedback**

-관객이 기호에 따라 선별적으로 작품과 작가를 구독
-작가와 관객의 지속적인 상호 피드백
-참여형 큐레이션, 크라우드 펀딩 등 2차 소비 활동 촉진

**확장성**

-전시 공간과 형태를 확장시켜 공공재적 예술 소비의 기회 제공
-창작물 생산 및 유통 인프라 확충에 기여

## 작가와 관객의 매개

두 주체를 매개해주는 O2O기반의 플랫폼

창작자인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등록하고
관객은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났을 때 필링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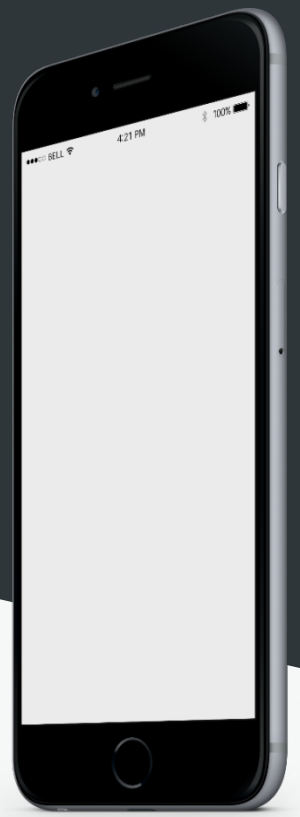
# 시연 및 기술설명 | 비콘

## 작품에 비콘을 달다

작품 뒤나 관객이 볼 수 없는 곳에 비콘을 달아
관객이 다가옴을 인지

저전력 , 실내위치기반서비스
모든 스마트폰과 호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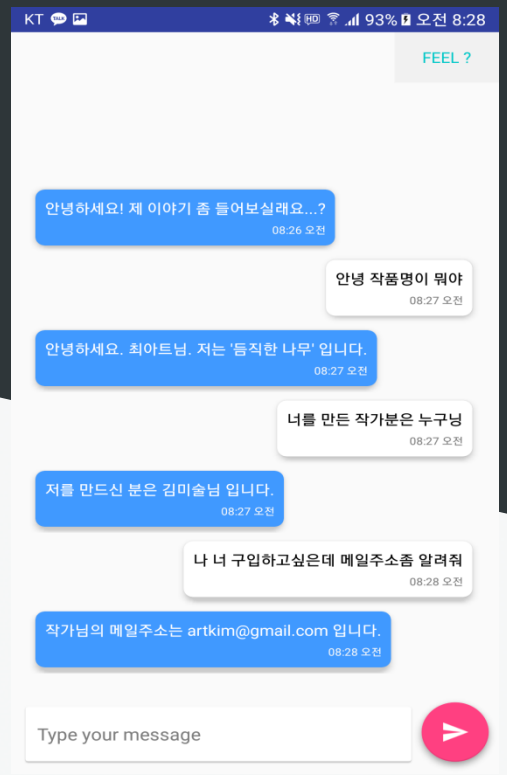
<캠밸수프통조림-앤디워홀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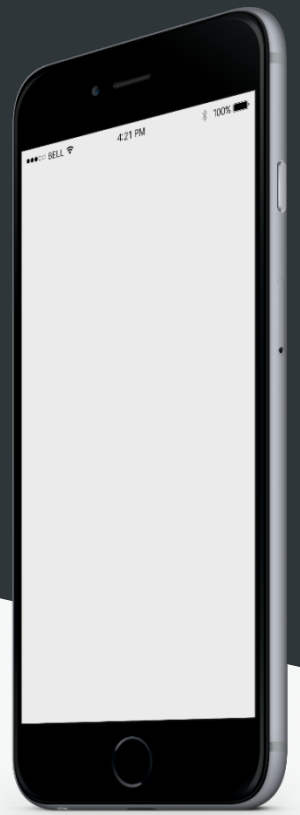


# 시연 및 기술설명 | 챗봇

## 작품이 먼저 말을 걸다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AI 챗봇 시스템과 사용자가 1:1로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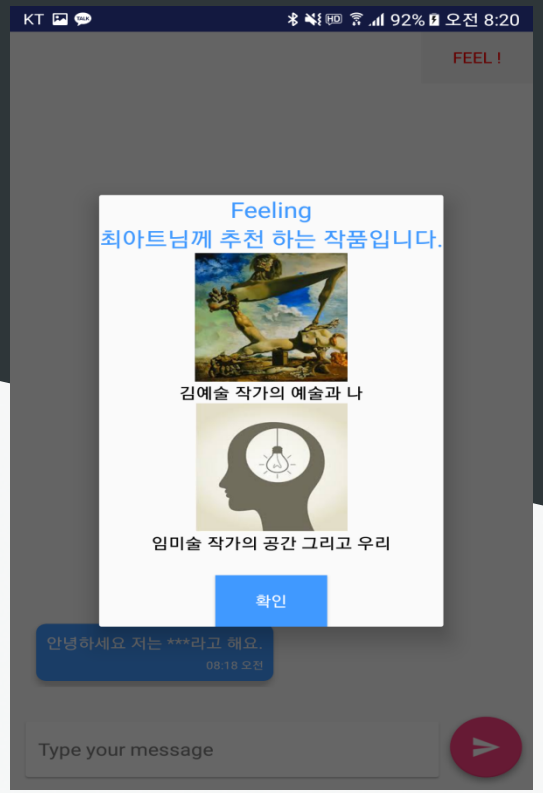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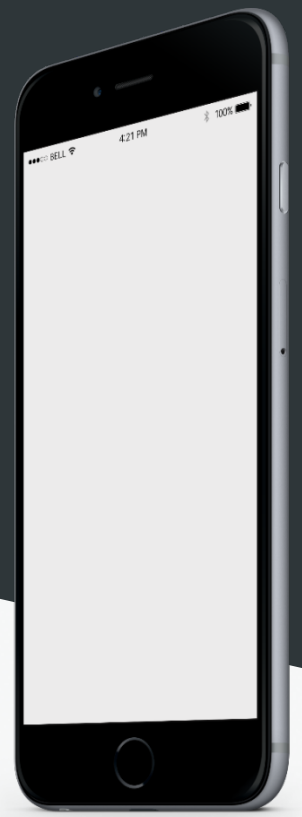



# 시연 및 기술설명 | 빅데이터 & 유저커스텀

## 관객, 작품에 “Feeling”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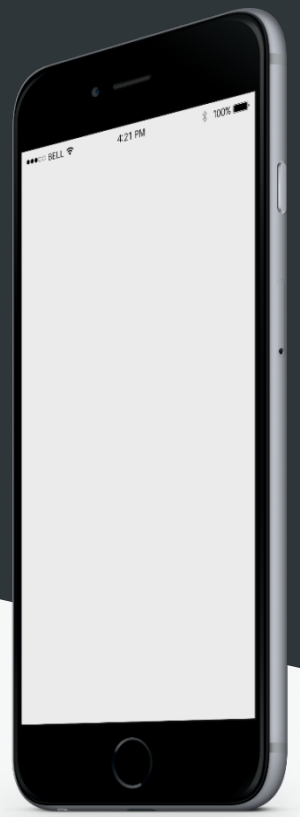
먼저 말을 걸어 온 작품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Feeling 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성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컨텐츠를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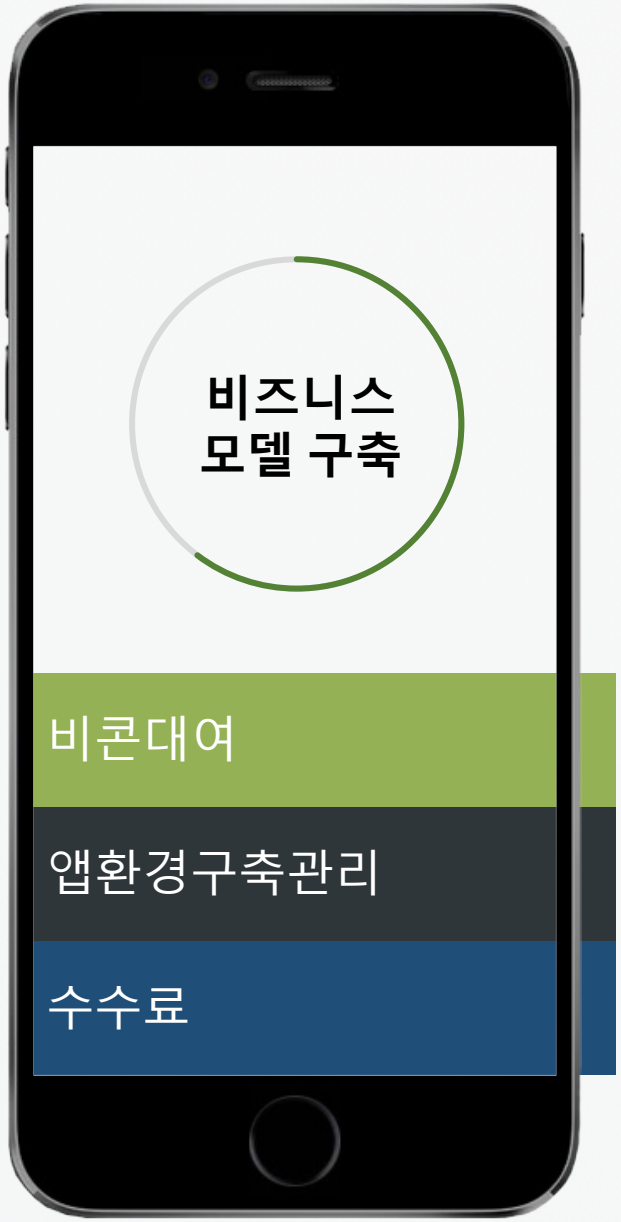



## 관객, 2차 전시를 큐레이션하다

크라우드 펀딩 등 참여형 큐레이션을 기획



**Feeling 한 작가의 후속 전시를 크라우드펀딩**




## 01. 비콘 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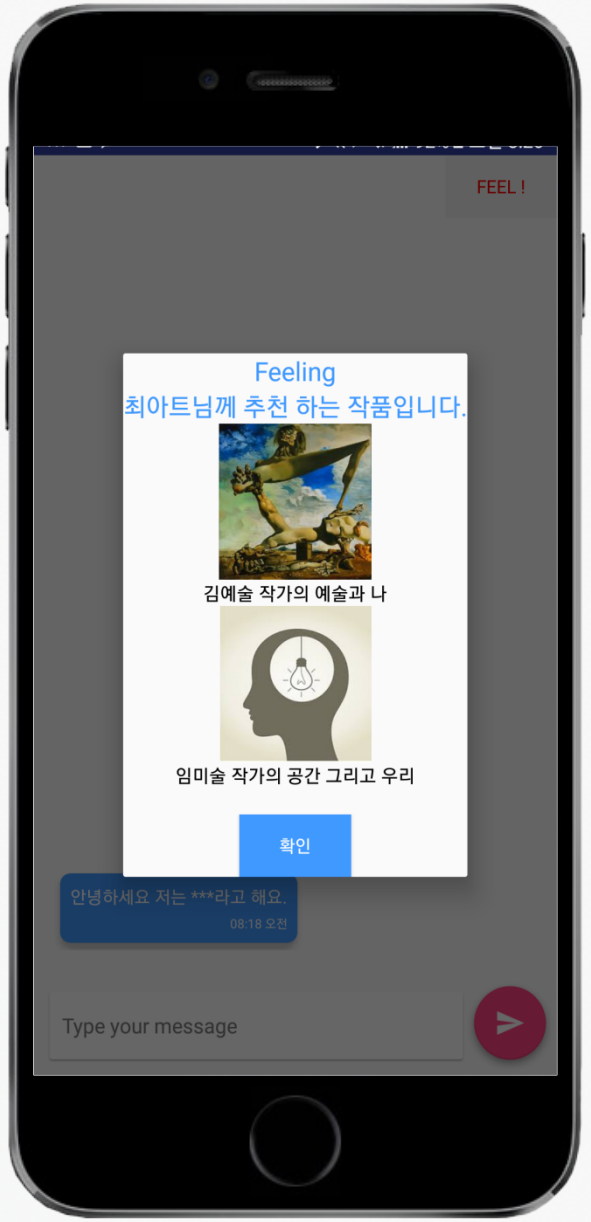
월정액 이용료를 받고
비콘 및 OTG대여

## 02. 앱환경 구축관리

작가들의 작품이미지와
설명을  앱에 업로드하고
관객의 관람평가 관리
서비스 제공

## 03. 2차 전시기획 수수료

관객의 필링과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후원금으로
작가 후속전시 기획



# 비즈니스 타겟

앱 초기구현

**01.**
**CORE TARGET**

미술관, 전시관,
아트페어 등

사용자에게
스마트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있는

예술 기관

**02.**
**SUB TARGET**

스마트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고 있는

예술 기관

**03.**
**THIRD TARGET**

플랫폼을
사용하기
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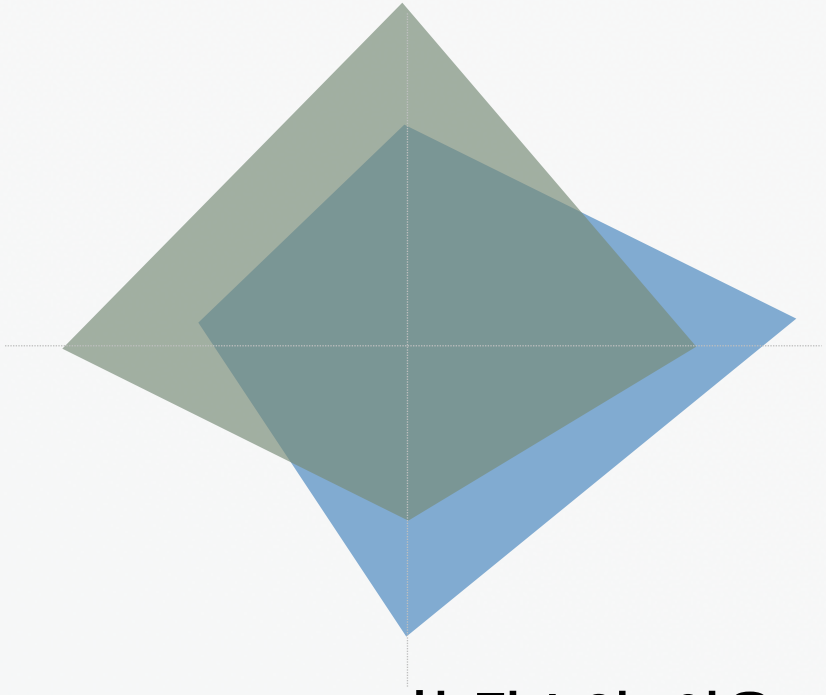
예술가

앱 상용화
단계

# 이익과 기대효과

## 01.작은 디바이스

비콘이라는 작은 디바이스로 저렴하게 이용
거추장스러운 연동기기 없이 스마트폰에서  구현



## 02.관객의 자연스러운 필링

메시지의 PUSH 알람이 관객에게 선택적이어서
무조건적이지 않은 선별적 참여 가능

작가/작품 구독, 후속전시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등
2차 소비를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경험

## 03.PLAYABLE한 장소의  이용

폐쇄적이지 않고 활동적인 박물관을 어디서나 구현
먼저 대화를 걸어오는 작품은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인터렉티브적 요소

## 04.멀티 가이드

작가와 관객의 대화와 후원을 통해
창작활동의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작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일선실세_박일석
발표자

본인_남기륭
기획자

열일러_시용욱
개발자

목소리김원준_송치윤
개발자

팀장_황상은
기획자

질문맨_김동현
기획 개발자

개발실세_조남진
개발자

8282

Thank you for listening